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69호

2025년 10월 5일(다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김미아 헬레나 Cell : 808.291.7811		



오늘의 미사

연중 제27주일

▶ 1독서 : 하바쿱 예언서 1,2-3; 2,2-4 ▶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2독서 : 티모테오 2서 1,6-8.13-14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 복음 : 루카 17,5-10
---	--



사목공지

- 10월 19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10월 19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고해성사는 미사 전후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 10월 16-17일, 21-24일까지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10월 봉성체 안내
10월 봉성체는 10월 9일(목, 오전)에 서쪽지역,
10월 10일(금, 오후)에 동쪽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0월 19일~25일)
- 매월 넷째 주 10월 26일(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헌'
- 11월 성체강복은 6일 저녁 미사(목요일 7시) 중에 있습니다.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목위원회

①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주제: 구세주 예수그리스도

시간: 10월 5일(일) 오전 9:00,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구역 및 단체

①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10월 5(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쏘렉 구역모임

일시: 10월 7(화) 오후 5:30

문의: 이명노 비오(227-5630)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③ 상임위원회 모임

일시: 10월 12(일)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④ 다락방 모임

일시: 10월 12일(일)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⑤ 카이무키 구역모임

일시: 10월 12(일) 오후 5:00

문의: 황성자 마리아(220-0822)

장소: 황성자 마리아 자택

⑥ 와이파후 구역모임

일시: 10월 25(토) 오후 6시

문의: 안마르첼라 391-8347

※ 본당의 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이영미 마리아

※ 본당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이살린 바울리나

※ 한글학교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송정선 데레사, 이살린 바울리나

기타공지



헌금

10월 4/5일 'Ohana in Christ 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9월 27/28일 : \$11,942(나눔봉헌제외)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39명
	주일헌금	교무금	나눔 봉헌	특별헌금		
	\$3,857	\$4,620	\$1,994	\$3,465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

희년 특강 [제 12 강] 그리스도인의 희망

희망 속에 기뻐하라 (로마 12,9-13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하느님 사랑의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마태 22,37-39)는 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희망의 원동력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진정한 애덕(愛德)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선적인 사랑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해관계나 자기과시를 위한 사랑은 인간의 허영에서 비롯된 위선이며, 진정한 사랑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1. 사랑의 본질: 은총과 겸손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요한 3:3-6이 말하듯,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자비로운 모습을 체험할 때, 비로소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마음이 치유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2. 희망의 역설: 실패가 은총이 되는 이유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완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 자체가 은총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함을 깨닫고, 작은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연민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이에게 다가가는 행위가 희망의 실천입니다.

3. 기쁨의 비결: 희망 속에서 살아가기

바오로는 "희망 속에서 기뻐하라"(로마 12,12)고 촉구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삶, 즉 작은 선행과 기도를 통해 희망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들의 수난 중에도 부활을 희망한 것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 사순 시기는 회개와 희망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위선이 아닌 은총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자비에 의지해 매순간을 희망의 발걸음으로 내딛어야 합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추천영상: YouTube 이병근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희년교리)



알아두시다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 연중 제27주일 강론 요약본

하와이에서 맞이하는 한가위는 고국의 들판과 곡식 대신, 이민 생활 속에서 맺은 땀과 사랑, 공동체의 열매를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도들은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거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신앙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한 후에도 겸손히 주님의 은총에 의탁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믿음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작아 보여도 주님께 맡길 때 자라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키워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며,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체적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식탁에서 신앙을 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한가위의 본래 정신은 감사와 나눔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이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복음적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은 재물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작은 믿음을 실천할 때 하늘 공간이 채워집니다. 이번 한가위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와 나눔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 ‘미사’: 교회 안에서의 환호

미사 중 사제는 성찬 전례의 시작 부분에서 “감사송”을 기도합니다. 이 감사송은 당일 전례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기도로 교회 공동체를 환호어로 초대합니다.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자분들은 이 기도문에 따라,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하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 환호는 거룩한 만찬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원들이 능동적으로 환호하게 돕습니다. 가끔 이 부분에서 함께 노래하지 않거나, 성가대만의 임무라고 생각하며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능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소리로 환호에 동참해야 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세로 미사를 봉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사와 성인들까지 다 함께 환호하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역시 목소리와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환호를 올려드림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교회 공동체원들의 환호는 미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은 점을 알려줍니다. 미사가 환호라는 측면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비단 “거룩하시도다”의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4항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미사가 “대화 와 환호”의 차원으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사 거행은 그 본성상 ‘공동체 행위’라는 특성을 지니므로, **사제와 함께 모인 신자들 사이의 대화와 환호는 매우 중요하다**. 이 대화와 환호는 미사가 공동체의 거행임을 밖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제와 교우들의 일치를 이루고 굳건하게 한다.”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교회 공동체가 일치되어 하느님의 영광에 감사를 드리고, 환호로서 응답하는 축제입니다. 지난번 미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며 “만남”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친교로서 하나가 되기 위한 만남, 환호로서 하느님께 응답을 드리기 위한 만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일치된다는 상징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환호로 미사를 구성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